

공감 그리고  
2024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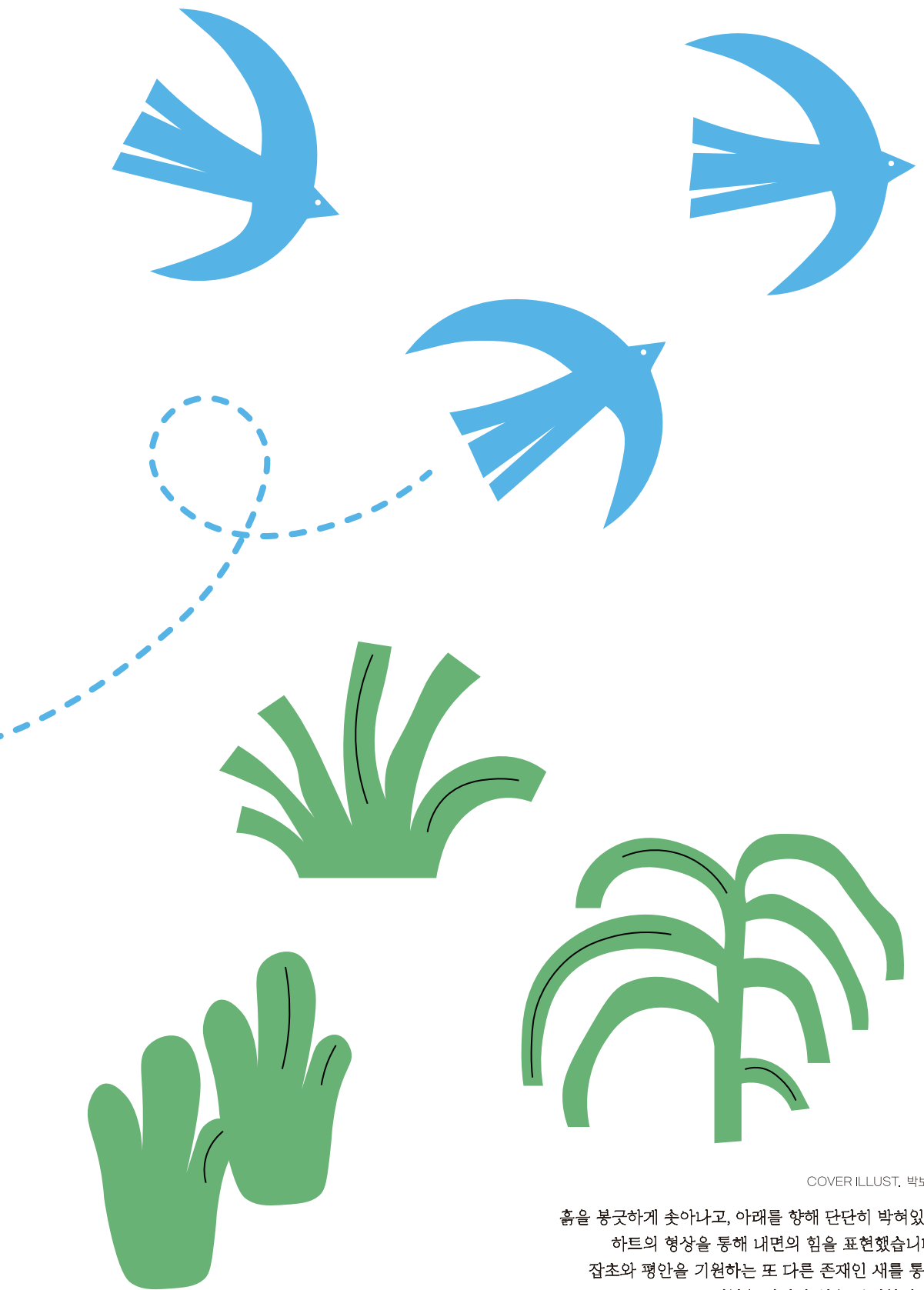


VOL. 55

흙은 가장 원초적인 매체이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땅을 만들어준다



안녕을 기원하는 존재로부터  
일상을 살아갈 힘을 전달받는다




COVER ILLUSTRATION. 박보은


흙을 붕긋하게 솟아나고, 아래를 향해 단단히 박혀있는  
하트의 형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표현했습니다.  
잡초와 평안을 기원하는 또 다른 존재인 새를 통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부여합니다.






## 오파츠022 작업일지

발견일자 2022.09.30. 20:34	오파츠022 유물 44번
	<p><b>망화</b></p> <p>생김새가 뿌리와 줄기를 지닌 식물과 같다. 이 기이한 꽃은 휘파람을 불고 환한 불을 켜는 특성이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다.</p> <p>마을에 있는 지 수백 년은 됐으면서, 밤에 불을 켜놓고 휘파람을 불어대며 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결국 꽃을 꺾고자 하니, 미쳐버리고서야 만다.</p>

발견일자 2022.11.05. 07:50	오파츠022 유물 176번
	<p><b>갈산</b></p> <p>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지느러미가 있다. 나이가 많으며 눈치가 빠르다. 무기로 무장하면 금세 눈치를 채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맨손일 때 등장하는데, 이 때문에 퇴치하거나 물리치기가 어렵다. 울음소리만으로도 인근 암석이 깨질 만큼 위압감이 있다.</p> <p>음산한 계곡으로 가 맨몸으로 유인하자 햇불 같은 광채와 함께 나타났다. 두꺼운 가죽옷을 입은 이빨과 발톱 공격을 막으며 검은 물리친 무관이 존재한다고 한다.</p>

발견일자 2023.01.21. 15:42	오파츠022 유물 103번
	<p><b>비비랑이</b></p> <p>생김새는 소 같은데 호랑이 무늬가 있고 그 소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같다. 소리를 듣다 보면 따라가게 되는데 정신 차리면 이미 입속이라 한다. 양반 백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된다.</p> <p>아아,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나무, 쇠.. 무엇이든 다 먹어 치우지. 그러나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어. 양반. 아흔하고 다섯을 더 먹었는데. 이제 다섯 남았다.</p>

발견일자 2024.02.07. 10:42	오파츠022 유물 201번
	<p><b>스콜지</b></p> <p>시체를 등에 업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팔에 붙어버린다. 이렇게 붙은 시체는 아무리 애를 쓰고 움직여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p> <p>물리치는 방법은 불심이 있는 자가 진심으로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3일 정도 기도하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p> <p>&lt;용재총화&gt; 6권에 이와 같은 신기한 시체 괴물이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p>

#### 신영주

감천문화마을 벽수공방에서 새로운 유물 제작. 실제 문헌과 지역 설화를 조사 후 가상 연구소를 세운다.





## 강아지풀 관찰일지

### 2024.08.13. 보도블록 틈 사이

보도블록 위 물방울 모양을 한쪽 방향으로 길게 당겨 얇고 길쭉한 물방울 모양을 띤 강아지풀을 관찰했다. 얇고 센 털들이 뻗곡하게 자라 만졌을 때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졌다. 그 옆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듯 인사하고 있는 강아지풀이 있었다. 보도블록에 누워 위로 자라나는 대신 옆으로 강차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것이다. 나 또한 나의 방향속도를 찾아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나아가도 괜찮겠다.

### 2024.08.17. 버스정류장 옆 화단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길을 걸었다. 황재다. 버스정류장 옆 사군자 난의 곡선처럼 기막힌 비율의 강아지풀을 발견했다. 둥글둥글한 연두 빛깔을 띤 아직 머리가 덜 자란 듯 귀엽게 핀 아이 옆 흰 수염처럼 나 있는 할아버지 강아지풀 밑에 청록 빛깔을 띤고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푸릇한 강아지풀이 조화롭게 피어 있었다. 아동기에서 노년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들이 한데 모여 공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강아지풀을 보고 있으면 “왜 잡초로 취급받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라보는 태도에서 모든 건 달리 보인다.

### 2024.09.07. 놀이터 주변 아스팔트

청초한 초록을 품고 있는 강아지풀 한 줄기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자라나 있었다. 사방에는 쓰레기들이 뒤엎혀 자라날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줄기가 휘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당당히 자라나 있었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위로 뻗은 모습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 5개의 잎이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듯 교차하고 있었다. 잎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끝이 반듯하게 잘려있었다. 이렇게 굳건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뿌리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외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뿌리는 나에게 지도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강아지풀들의 뿌리가 모여 지형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나 자신도 나만의 뿌리 지도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한다. 다양한 현실 체험을 통해 연결되고 단절되기도 하며 조화되고 충돌하는 흔적들이 쌓여 나만의 지도가 완성될 것이다.

### 2024.10.05. 횡단보도 옆 보도블록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살짝 차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섞인 가을바람이 강아지풀을 살랑이고 있었다. 보도블록 틈 사이 노르스름하게 익은 강아지풀 한 무리가 있었다. 강아지풀 이삭이 한올지게 잘 익어 패딩을 입은 듯 뽕뽕했다. 추수의 계절을 알리는 듯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꼭 터줏대감 같았다. 푸릇푸릇했던 조그마한 강아지풀이 시간이 지나 노르스름하게 익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보도블록 밑 단단하게 뻗어있는 뿌리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 2024.10.08. 비탈길 아스팔트 위

아스팔트 위 강아지풀이 낙엽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붉은 갈색빛을 띤 아스팔트 위 황갈색의 강아지풀은 먹고 있는 고추들 사이에 같이 말려지고 있는 모습 같았다. 가는 가지들은 각진 직선에서 시작해 꽃으로 갈수록 곡선의 모습으로 끝나 있었다. 처량한 듯 자유로워 보였다. 길가에 피어 있는 강아지풀을 보다 보면 똑같은 형태의 강아지풀이 없다는 걸 느낀다. 하나의 이름 아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 같다. 나 또한 하나의 몸 안에 다양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흥미로운 일이다.

### 2024.10.12. 헌옷수거함 밑

헌옷수거함 밑 틈에서 작게 피어나 있는 강아지풀을 보았다. 헌옷수거함 속 공간은 쓰임이 끝나 또 다른 쓸모를 가지는 시작의 장소로 보였다. 각자에게 맞는 쓸모 있는 옷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쓸모없는 것은 없다. 과거의 흔적들도 지금의 가치에는 쓸모가 있다. 잠시 그 쓸모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쓸모가 없어진 헌옷수거함 속 옷과 강아지풀도 쓸모를 아직 못 찾았을 뿐이다.

### 배하람

잡초를 매개로 한 회화, 사진, 설치 작업을 통해 생명력과 리즘적 연결망을 탐구하는 시각 예술가.

잡초뿌리를 재구성한 지도를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삶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 엽

오파초022 작업일지 .....	02
-------------------	----

신영주

강아지풀 관찰일지 .....	06
-----------------	----

배하람

## 시선

내면의 힘 .....	12
-------------	----

박보은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	14
------------------------	----

이근영

닭고기 뿌리채소 조림이 익는 동안 .....	18
--------------------------	----

라이스스튜디오

## 시절과 공간

나의 작품 이야기 .....	22
-----------------	----

권달술

클래식의 낭만, .....	26
----------------	----

에덴공원 강변밀크샵 그리고 솔바람음악당

김근자

## 사람과 사람들

상상을 그리는 연대의 온기로부터, 동화작가 안미란 .....	36
박소연	
겨울눈의 기다림 .....	42
곽다희	

## 지금\_부산문화재단 15주년

막힌 미로에서 길을 찾다 .....	47
이주영	
틀에디션 : 바다에 핀 들꽃 .....	50
양승민	
<Our [ ]> .....	54
윤아연	
무언(無言)의 공간, 예술로 다가오다 .....	58
신나리	
부산문화재단의 비밀 .....	62
박소라	

## 너머

내 꿈 먹지 마! .....	66
이수빈	

# 내면의 힘

글. 박보은

겨울은 꽃이 지는 동시에 다음 해의 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차가운 땅속에서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번 겨울호를 준비하며 앞으로 뻗어나갈 힘을 가진 두 작가를 만났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작업 방식을 택하지만, 비슷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배하람 작가는 강아지풀로, 신영주 작가는 토우로 각자의 길을 만들어낸다. 배하람 작가는 강아지풀과 같은 잡초를 다루며, 이들이 땅을 파고들어 더 자라날 거라는 희망을 건네준다. 신영주 작가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존재들에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전달한다. 그렇게 11월 말,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두 작가의 작품 앞에 마주 서 보았다.

배하람 작가와 신영주 작가의 작품은 각각의 지형도로 드러난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지형도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환경을 보여준다. 흘러가듯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땅 위로 자리 잡고, 이들의 작품은 일반화에서 벗어난 길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형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한다. 배하람 작가는 흙 속에 자리 잡은 흔하디흔한 '강아지풀'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길을 거닐며 마주한 강아지풀을 뿌리 형태의 지형도로 나열하고,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길을 이미지와 그림의 콜라주 방식으로 확장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강아지풀은 마치 그가 거닐며 마주한 풍경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상에서 마주한 수많은 강아지풀은 명함 위로 재현된다. 명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저기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흠뻑 젖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바뀌야 했던 전화번호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명함에 잡초로 분류되는 강아지풀을 그려 넣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땅에서 자라나는 풀 중 쓸모없는 존재들을 잡초라는 이름으로 정의 내린다. 작가는 우리의 시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를 쓸모없어진 명함을 통해 뒤집는다.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 강아지풀들의 본질에 집중하여 새롭게 그려낸 강아지풀은 잡초가 아닌, 쓸모를 부여한 하나의 매개체로 자리 잡는다. 그는 잡초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강아지풀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개인적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한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명함으로, 일반적인 컨버스에 그림을 그리던 기존의 작업 방식과는 또 다른 작업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신영주 작가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인 흙으로 자신만의 오브제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브제의 존재성을 ‘오파츠’로 명칭하고, 또 다른 상징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정하듯,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유물을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토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기존 유물에 쓰인 프레임을 벗어나려 한다. 유물은 현대인들의 시선에서 이름이 붙여지고, 용도가 추정되며 정의 내려진다.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의 인식이 반영된 유물의 상징성을 깨뜨린다. 그는 새로운 존재의 유물에 스토리와 성격을 부여하고, 세계관을 확장해 나간다. 스스로를 ‘연구소장’이라 부르는 작가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깃든 토우들을 새롭게 재생산한다. 흙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수호적인 존재인 장승, 그리고 도깨비, 토우를 통해 현실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낸다. 기억의 지형 속에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이 흐른 자국이 드러나 보이는 작업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다. 이는 삶을 파고들어 또 다른 지형도를 만들고, 여러 개의 토우는 작가가 걸어갈 길의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

두 작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형도는 거닐어온 삶의 발자취가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업에 기인한 개인적인 서사가 확장되어 표현되고 표출되어, 작품으로 승화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한 ‘흙’이란 존재를 통해, 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흙은 가장 원초적인 매체이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땅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듯, 이들의 ‘내면’도 단단한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흙 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며 단단해지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며 점점 단단해지는 내면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았다. 두 작가가 가진 내면의 힘을 들여다보며, 흙을 파고들어 점차 뻗어나가는 뿌리처럼 앞으로 어떤 지형도를 그려나갈지 궁금해졌다. 이들이 만들어갈 기억의 지형 속에서 각자가 나아가야 할 길 또한 찾아보길 바란다.

#### 박보은

로컬 생산자. 디자인 스튜디오 ‘로크 스튜디오’ 운영.

부산에서 로컬 관련 기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를 기록하며 써내려가고 있다.

##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이근영

역사학과 민속학을 공부하고 학예연구사로 근무 중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고, 스포츠팀의 마스코트가, 과자에 그려진 캐릭터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새 깃털로 화려하게 머리 장식을 쓴 인물이 먼저 떠오르지 않은가. 우리는 인디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북미 지역만 한정해서 봐도 미국에는 570여 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600여 원주민 부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디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원주민 부족 중 극히 일부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다. 게다가 ‘인디언(Indian)’이라는 명칭 또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고서 인도로 착각한 데서 나온 용어였다.

당시 원주민들은 각각 자기의 부족을 구분 지어 부르고 있었지만, 바다 건너 온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북미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는 한 단어로 통칭되었다. 이후 꾸준히 바다 건너온 이주민과의 갈등과 미국의 탄생 이후 원주민들의 문화를 바꾸려는 강제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원주민은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인디언 대신 원주민들을 부르는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아메리칸 인디언(American Indian), 네이티브 아메리칸(Native American),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네이티브 피플(Native People), 인디제니스 피플(Indigenous People) 등의 말을 사용한다. 많은 용어가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원주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용어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주민들은 이보다 자신들의 부족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북미 대륙에는 570여 개가 넘는 원주민 부족이 있는 만큼 그 문화 또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원주민들이 북미 대륙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집 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주변에 얼음과 눈밖에 보이지 않는 북극에서는 눈으로 만든 벽돌로 이글루라는 집을 지었다. 북동부의 삼림 지역에서는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특징인 롱하우스를 지었으며, 북서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삼나무로 만든 플랭크하우스를 지었다. 건조한 남서부 지역에서는 진흙과 지푸라기로 만든 어도비라는 집을, 대평원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들소 떼들을 따라 이동하기 위해서 설치와 해체가 간편한 이동식 주거 형태인 티피를 만들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기후와 지리적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북미 원주민들의 문화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원주민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자 믿음인 순환적 세계관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북미 원주민들은 신-자연-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신은 자연의 동물과 식물에 깃들 수도 있고 인간에 깃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게 배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여긴다. 또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역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원주민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신화와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알래스카 지역의 유피크족 사람들은 사냥한 물개의 방광을 말려 보관하다가 다음 사냥철에 말려 두었던 방광을 바다로 띄내려 보내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작년에 잡았던 물개가 올해 다시 같은 물개로 돌아와 잡힐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리고 태기쉬족 사람들은 곰이 땅을 팔 때와 동물을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곰과 인간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 서로 피로 맺어진 동족이 되며, 곰이 사람으로, 사람이 곰으로 변신한다는 내용의 신화로 나타난다.”<sup>1)</sup>

01 강서정,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순환적 세계관』 문학과 환경17, 문학과환경학회, 2018 참조.

‘미타쿠예 오야신(Mitákuye Oyás'in)’은 원주민의 순환적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대평원 지역의 오글랄라 라코타 족 사람들의 인사말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모두 친척 관계’로 번역할 수 있다. 인간은 가족, 친구, 동물, 곤충, 식물뿐 아니라 바위, 강, 산, 계곡 등 모든 형태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룬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북미 원주민들이 생명이 없다고 일컫는 무생물도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수 족의 일원인 오글랄라 라코타 사람들에게 최고신인 와칸 탄카(Wakan Tanka)와 관련이 있다. 와칸 탄카는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신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와칸 탄카의 일부이며, 와칸 탄카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이 믿음 아래 인간과 자연,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며,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까지 발전한다.<sup>02</sup>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덴버박물관의 소장 작품으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는 북미 원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적 세계관을 담은 공예품, 의복, 생활용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북미 원주민들의 역사를 담은 작품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북미 원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한 흔적이 담긴 회화 작품 등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sup>03</sup>

02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 의식』, 미국학논집35,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참조.

03 부산박물관 교류기획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덴버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이어 부산박물관에서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 전시한다.

## 닭고기 뿌리채소 조림이 익는 동안



라이스스튜디오(한수현, 오승훈)

부산 영도에서 요리도 하고 채취도 하고 수영도 하며,  
음식이 가져다주는 감각과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빚어내기 위해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팀이다.

나 못 참겠는데?

아니 좀만 더 기다려봐, 더 조려야 한다고

닭고기 뿌리채소 조림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다. 이제 다 됐나? 싶을 때 한 번 더 참아내야 겨우 완성되는 법. 국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데, 함께 일하는 오 씨는 참지 못하고 계속 보챈다.

무슨 점심 하나를 두 시간이나 하고 있어

어허, 그냥 점심이라니! 다 연구고 공부라고

맛있는 점심을 해주겠다고, 동시에 겨울 제철 음식 연구도 할 수 있다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닭고기와 뿌리채소를 준비해 점심 당번을 자처했던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완성을 못 한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미처 계산을 못 했다. 그래도 기왕 시작한 음식, 타협할 순 없다. 최고의 맛을 뽑아낼 때까지.

눈치 없는 우영이며 연근, 당근이 물렁해질 생각을 안 한다. 역시 뿌리채소의 역센 성질, 쉽게 약해지지 않는구나. 땅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뿌리채소들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땅 밑 더 깊게 뿌리내려 굳세게, 단단하게 익어감을 느낀다.

겨울이 되면 자연 만물은 밖으로 내뿜던 기운을 서서히 안으로 응축하기 시작한다. 땅으로, 굴로, 깊은 바다로 숨어들어 에너지를 모은다. 춥고 얼어붙고 거칠어지는 시간을 굳이 맞받지 않고 온화한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려는 자연의 지혜인 듯하다.

그래서 채소요리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는 제철 채소의 가짓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온갖 과실이 쏟아지는 가을의 식탁에 비하면 겨울의 식탁은 계절성이 희미해지고, 채소는 기운이 부족하고, 과일은 빛을 잃는다. 겨울이 오기 전 저장해놓았던 찐지며, 절임 같은 식재료들을 꺼내 한 상 차리는 게 그나마 겨울 제철 식탁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까.

겨울에는 거뭇하게 흙이 묻은 뿌리채소들을 주목해야 한다.

우영, 연근, 토란, 당근, 이런 아이들이 땅에서 머금은 힘이 대단하다. 다만 뿌리채소들은 땅의 향이 진하게 배어있고 식감도 역서서 조화롭게 요리하기 쉽지 않다.

봄 식재료의 여러여리함이나 여름의 싱그러움, 가을의 풍성함은 그다지 조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겨울의 뿌리, 그 단단함은 요리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자연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 줘도...

날카로운 오 씨에게 어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국물이 다 졸아들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초조해진다. 땅의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해 가며 얼른 조림 국물이 졸아들기를 빌어본다.

공연히 익지 않는 조림을 주걱으로 빙빙 뒤적거리다 문득, 모든 존재들은 역세지고 버티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꼭 한 번은 밖으로 뻗어나가기를 멈추고 안에서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여름처럼 뻗어나가던 한때, 왕성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벌이고 수습하고, 치열하게 돈 벌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화려하고 번잡한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관계에 치이고, 자신을 갉아먹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에 온통 신경을 쏟았다는 느낌에 빠져들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쉬기는커녕 더 강한 도파민, 더 큰 자극으로 그 빈 곳을 메우려 더 열심히 활동했다.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나를 더 조금하게 만들었고 끝없이 달렸으며 그 결과 내 삶은 조금 설익은 듯 간이 어긋난 듯 풍미를 잃었다. 혹시 그때 잠시 멈춰서서 깊이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내 안에 집중하고 뿌리를 키울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었을까.

우영이 하나도 안 쓰고 향긋함만 남았네?

그치. 닭고기에도 은은하게 향이 배었고.

겨우 완성된 닭고기 뿌리채소 조림. 곰처럼 큰 오 씨가 어울리지 않게 뿌리채소 하나하나 섬세하게 맛을 느끼며 먹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맥이 풀린다. 뿌리채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고, 자기 안에 응축시킨 에너지를 밖으로 풀어낸 결과.. 오 씨의 영양분이 되었다. 안정적인 자연 순환의 과정을 묵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겨울에는 벌여놓은 바쁜 일들 몇 가지만 마무리되면 꼭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보자고 다짐한다. 무엇이 내실일까, 조용히 공부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교양도 쌓고, 아니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새롭게 맞이할 봄부터 또 열심히 뻗어나가기 위해, 이번 겨울은 내 안으로 깊게 들어가 뿌리를 통통하게 만들어 보기로 한다.

이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더 벌여서는 안 된다. 벌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새로운 일이 나타날 때 흥분을 가라앉히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일이다.

### 간단 닭고기 뿌리채소 조림 레시피

①

우엉, 연근,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굵게 썬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4등분, 대파는 푸른 부분을 굵직하게 썬다. 닭고기도 한 줌 크기로 먹기 좋게 썬다.

②

기름을 두르고 닭고기 표면이 하얗게 될 때까지 볶다가 닭고기는 일단 꺼내고 닭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이용해 다른 재료들을 볶아낸다.

③

조림국물(물, 간장, 맛술, 설탕의 배합)을 넣고 조리다가 절반으로 줄면 대파는 꺼내고 닭고기를 넣어 함께 조리한다. 조림국물이 거의 사라질 때 완성.



권달술의 그때 그 시절

# 나의 작품 이야기

글. 권달술



나는 조각을 한다.

내 작품들은 대개 유연하게 왜곡된 육면체의 외곽선들이 공간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또, 그 재료는 작품들에 따라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은 석재도 있지만 대개는 브론즈나  
스테인리스 혹은 철 등 주물로 된 금속들이다.

나의 작품들은 부산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시내 곳곳과 양산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고,  
양산에 있는 '권달술의 조각마당'에는 야외 전시의 형태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더러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가난했었다.

나는 전쟁 무렵인 1950년에 초등학교엘 들어갔었다.

새 연필을 살 형편은 못되었기에 집에 있던 유일한 몽당연필의 새 주인이 된 나는 종이 찌가리만  
보이면 뭐든지 그리곤 했다.

어느 날 부잣집 아이 하나가 새 대자(대나무 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공책에 이런저런 직선을  
멋지게 그려 보이며 품을 잡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그런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려내는 똑바른 직선들이  
너무 멋있고 신기해서 내심 부러웠다.

나는 당장에 과감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공책을 한 장 찢어 접고 접어 그 대자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는 그 아이의 흉내를 내듯 4각형도 그리고 6각형도 그려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자꾸 그릴수록 중간에 꾸불거리는 부분이 생기곤 했다. 그래도 나는  
여러 모양들을 신명나게 그리곤 했다. 그런데 나의 그 종이 자는 얼마 가지 않아 종이의 연약함  
때문에 구불거리기 일쑤였다.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던 2007년 어느 날, 우연히 50년도 훨씬 이전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때 내 불만이었던 그 꾸불거리던 선들이 인간적인 그리움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그  
기억과 결부된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어졌다.

곧바로 그때 종이 자로 그렸던 여러 모양들을 떠올리며 주변의 종이들에 볼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여러 갈래로 조형적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듯 오갔다.

어떻게 기하학적인 이미지밖에 없는 육면체의 선들을 인간미가 꿈틀거리는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세련된 현대적 감각과 작품성 그리고 품격도 함께 발현되게 해야 하는데...

일단 시작(試作)을 만들어 봐야 했다.

처음엔 철사와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보다가 이리저리 기법과 재료를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실험 재료로 포맥스(formax, 석유화학 제품으로 열에 약한 간판 재료)를 발견하면서 가능성은 대박이 되었다. 간판 재료상에서 구할 수 있는 포맥스는 베니어판 같이 각종 두께로 된 흰색 판의 형태인데, 비싸지만 두꺼운 것은 3cm 정도인 것도 있었다.

표면의 딱딱함과는 달리 커터 칼로도 잘 잘라지는 재료의 특성상 두께만큼의 너비로 선을 긋고 커터 칼로 잘라 정사각기둥 모양의 작대기를 여럿 만들었다. 그 후 이들을 다시 잘라 접착제로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든 뒤, 접착 부분이 단단해지면 온풍기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 직선의 선들을 구부리거나 이리저리 비틀어 내가 생각한 작품적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조각 작품은 보통 흙이나 석고 아니면 가변성 있는 재료들로 원작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목재나 석재 혹은 금속주물의 과정을 거쳐 영구 작품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목재나 석재로 영구화 작업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원작 본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비례자를 이용해서 줄이거나 키워 현실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금속주물의 경우는 원작을 가지고 본을 뜬 뒤, 그 본 속에 쇳물을 붓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작 그대로의 크기로밖에 현실화가 안 된다. 나의 작품들은 거의 금속 작품들이고 브론즈나 스테인리스 주물 작품이 많은 편인데, 대개는 1차의 포맥스 원작이 아니라 크기에 따라 재료도 달라진 실물 크기의 2차 원작으로 주물공장에 의뢰한다. 이때 주물공장에서는 여러 주물과정에서의 유의점과 표면처리까지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숙지한 뒤에 주물공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주물공정이 완전히 끝나면 마침내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2010년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건립한 상징조형물 <확장하는 꿈>

#### 권달술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제25대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내고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사)부산미술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문공부장관상 및 특선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380여 회 전시에 작품을 출품했다.

# 클래식의 낭만, 에덴공원 강변밀크샵 그리고 솔바람음악당

글. 김근자



사진제공 이준영

11월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긴 늦은 가을, 낙엽이 겹겹이 쌓인 에덴공원에 들어섰다.

숲길을 걷다 보니 전망대다. 나직히 주택가를 지나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점이었던 하단 가락타운이 있고 그 너머로 낙동강이 군데군데 보인다. 낙동강 너머로 가을 저녁 붉은 노을빛은 그대로이지만 그 많은 갈대들과 숲속 스피커에서 들려오던 클래식음악 소리는 세월에 자취를 감추었다. 강변밀크샵에서 솔바람음악당까지 에덴공원에 흐르던 선율은 어디로 갔을까.

에덴공원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6년 대청동 중앙교회 백준호 장로가 모친의 묘소 주변 3만여 평의 땅을 매입한 때 탄생했다. 백준호 장로는 그곳에 나무를 심고,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살던 낙원을 표방하며 ‘에덴원’으로 명명했다. 민둥산이었던 에덴원은 이제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오밀조밀한 숲길을 따라 돌아가면 낙동강이 한눈에 펼쳐지고, 에덴원부터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갈대밭과 철새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낙동강 하구의 황금빛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부산의 사하구와 북구의 주민들에게 대표적인 유원지로 자리 잡으며 이름도 ‘에덴공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봄가을 행락철이 되면 에덴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기동대를 고정 배치해야 할 정도로 붐볐다. 1970년대 에덴공원에는 둥글고 커다랗게 파인 구멍이 여러 군데 있었다. 같이 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큰 구멍에서, 숫자가 작으면 작은 구멍에서 라디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한다. 한복이 외출복이었던 시절, 한복을 곱게 입고 발바닥이 뜨겁도록 뽀뽀하며 날리며 춤을 추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의 신명이 사랑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만큼 폭행, 살인, 자살 등의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에덴공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붉은 노을이 비치는 저녁이면 김모 군, 이모 양 등 이름 모를 청춘의 아담과 이브들이 데이트를 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아베크족’의 성지로 더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sup>01</sup>

에덴공원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백준호 장로의 둘째 아들인 백광덕 씨가 1963년 붉은 지붕과 굴뚝이 있는 ‘강변밀크샵’을 열면서부터이다. 화가 조수남이 간판을 만들고, 음악 감상을 위한 음향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살롱 음악을 위한 무대도 만들어졌다. 남포동이나 광복동까지 나가지 않고도 좋은 스피커로 클래식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 생긴 것이다. 시내 음악다방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음악가 오태균, 안일웅, 화가 김종식, 송혜수, 신창호, 문인 김규태, 양왕용, 사진작가 허종배, 음악평론가 곽근수, 언론인 최화수 등이 모여들면서 강변밀크샵이 있던 에덴공원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클래식 마니아들과 부산시향 단원들이 찾아오면서 강변 음악회가 열렸고, 요산 김정환은 강변밀크샵에서 서여중 교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조각배를 타고 갈대밭으로 나가면 고니가 날고 강변의 주점 안에는 털게가 기어 다녔다.

01 『에덴공원에 핀 버들강아지』 『부산일보』 1973.1.5. 1판 7면 기사. 에덴공원에 핀 버들강아지, 그 아래로 소한의 추위도 있고 ‘아베크’가 한창이다.



사진제공 오성은

그런 강변 카페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며 브람스, 드보르작, 그리그의 선율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유명했고, 부산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어 더 유명해졌다.

1970년대 에덴공원의 강변은 청년문화의 공간이기도 했다. 독재정권의 엄혹한 시대에 청춘들은 에덴공원 강변 카페와 주막을 찾았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문화원에 방화를 시도했던 여학생들이 방화 후 도망친 곳도 에덴공원 주점이었다.<sup>02</sup>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갈대밭 너머 노을을 한 접시씩 공짜 안주로 주던 시절이었다. 부산대 학생들이 금정산성에서 술에 취할 때 동아대 학생들은 에덴공원 강변의 낭만 주점에서 취했다. 저렴한 가격의 주점들이 많아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대학생 문화에 동경을 품은 주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외 생활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래여고 문예반 시화전, 전원문학동인회<sup>03</sup>의 시화전, 백일장, 사생대회, 피아노 트리오의 밤 등 문학 행사와 클래식음악 공연이 끊이지 않았다.

02 『불지른 후 퍼머머리컷』 『부산일보』 1982.3.31. 3판 11면.

03 1968년 결성된 문학회. 전국 규모의 문예콩쿠르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부산의 고교 3년생, 그리고 부산 각 고교 문예부의 핵심 멤버가 회원 요건이다. 문학회는 71년 문예무크지 『전원』을 창간했고 이후 『전원문집』, 『전원동문 문집』, 『문예부락』을 내기도 했다. 1976년에는 당시 부산지역 낭만주의자들의 거처였던 에덴공원 한 카페에서 10월 기념 시화전을 열었다. 1980년대 들어와 부산 문단이 활성화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는 부산에서 문학교류의 장으로 전원문학회 행사가 거의 유일했다고 한다. 전원문학회 회원으로 등단한 이들은 많다. 양은순, 조귀자, 최정심 시인이 1기이고, 이후로 백지영, 강태기, 김종환, 조영옥, 이상희, 이산하 등이 시와 동시 장르에서 이름을 잇고 있다.

1976년에는 극단 ‘독립무대’(대표 설령)가 강변밀크샵을 개조하여 5평의 무대와 2백석의 객석을 갖추고 연극전용극장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여 부산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독립무대는 강변밀크샵에 조명시설, 소도구, 무대설비를 설치하고 레퍼토리시스템으로 극단 운영을 도모했다. 독립무대는 다른 극단에 연습장소나 공연무대를 무료로 내주거나 실내악단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단원들은 공연이 없을 때 종업원으로 차를 나르기도 했다고 한다.<sup>04</sup> 에덴공원 강변밀크샵은 젊음과 예술에 한껏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도시계획에 의해 에덴공원 인근에 도로가 생기면서 아름답던 갈대밭은 매축되어 주택단지가 되었다. 강변밀크샵까지도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백광덕 씨는 1986년 에덴공원 정상에 있던 매점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노천 음악당 ‘솔바람음악당’을 열었다. 음악으로 자연과 벗하며 낭만을 일깨우는 장소를 표명하며 천상병 시인이 부산을 방문한 그해, 솔바람음악당에서는 야외 <천상병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솔바람음악당은 국악 연주단체 새여름국악실내악단의 공연, 오페라와 발레 공연 영상 상영, 부산시향 목관팀의 연습 장소였다. 특히 강변음악동호회가 결성되어 갈대가 아름다운 가을이 되면 강변음악동호회 가을음악회를 열었다. 2002년부터 매월 시민과 함께하는 정다운 음악회를 열어 금관5중주단 연주, 목관5중주단 연주, 현악4중주단, 성악곡 등의 연주를 선보였다. 솔바람음악당은 정기적으로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간이었다.

솔바람음악당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이 시절을 추억하듯 오태균 음악비가 낙동강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지휘자이며, 후학 지도와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부산음악사회에 헌신한 그의 공적을 기리는 음악비다. 평소 솔바람음악당에 자주 들렀던 오태균과의 인연으로 음악비 건립터를 내어주었고, 제자들과 후배들의 모금과 헌신에 힘입어 2001년 6월 30일 빛들을 세웠다. 음악비 아랫쪽에는 오태균이 생전에 가장 많이 연주했던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첫 두 마디를 새겼다.

그러나 백광덕 씨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모든 음악회가 멈추었다. 입원 중에도 그는 매일 아침 솔바람음악당에 클래식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솔바람음악당에 대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솔바람음악당은 결국 2008년 문을 닫는다. 이후 보라색 꽃잎이 흐드러지게 피던 2012년 4월 28일,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성혜와 백성경이 솔바람음악당의 무성하던 잡초를 걷어내고 50년 전 에덴원을 처음 개척했을 때처럼 다시 음악회를 열었다.

04 『독립무대'서 에덴공원에』 『부산일보』 1976.1.22. 3판 5면.

부산시향 단원들이 참여한 <보리수>, <들장미> 등 독일민요를 4중주로 연주하였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의 대금 독주로 <젓대소리>가 연주되었다. 아마추어 오카리나 연주단 공연까지 더하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연주회를 매달 한두 차례 개최하리라 계획하였다.

이제 에덴공원에는 강변밀크샵도 솔바람음악당도 없다.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갈대밭을 덮고, 강변밀크샵과 솔바람음악당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예산으로 에덴유원지를 조성하고 '솔바람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카페와 갤러리로 운영할 것이라 한다.

우리는 에덴공원에서 바라본 노을의 서정과 낙동강 갈대의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소멸을 향한 존재의 비가시성 속에서 에덴공원의 파편들을 어떻게 다시 이을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갈대밭을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그리 다급하게 채우지 않았더라면, 털게가 클래식음악의 선율을 지고 나르고, 예산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낙동강 갈대 너머 붉은 낙조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을.

#### 김근자

학창시절 장래희망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기간 인생이 짧고 덧없다는 것을 각성했다. 교직을 떠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나이 많은 학생으로 공부하며 사는 사람이다.



Menu board with Korean text and a coffee cup icon.





신영주 <OOPArt series 022: 에백의 흙인형> Filaments and clay, Acrylic, Variable size, 2022-24.





공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 상상을 그리는 연대의 온기로부터

글. 박소연 사진·영상. 유돈희



## 동화작가 안미란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상은 도피가 아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안미란 작가에게 동화란  
이해와 존중의 언어가  
교차하는 세계이자  
여리지만 단단한 마음이 모여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즐거움을 나누는 순간,  
상상을 그리는 연대의 온기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인터뷰 동영상

안미란 작가님 안녕하세요. 1996년 등단 이후 오랜 시간 아동문학계에서 활동해 오셨는데요.  
창작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칙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란** 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안미란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가장 작고 약한 존재들의 목소리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이솝 우화에서 그물에 걸린 사자를 구해주는 건 작은 생쥐예요. 또 다른 예로, 옛이야기 속 중국 사신이 던지는 난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왕이나 선비가 아니라 힘없는 소년이나 할머니죠.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온 위로와 희망의 매개체가 바로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작품들이 작고 약한 존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희망을 주는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작품 속에 반영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공동체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미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개개인이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모두가 똑같아지려는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란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예의'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생명체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공생관계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본질이자 비로소 균형 잡힌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주민 인권 단체인 '(사)이주민과 함께'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경험이  
<그냥 씨의 동물 직업 상담소> 등의 작품 구상이나 창작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미란** 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왔는데, 보상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더 나은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됐고, 동시에 제 작품관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이야기로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작품에 스며들면서,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창작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방식과 그것을 작품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다정함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창작도 비슷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정함을 베풀기 어려운 것처럼,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공부해요. 그렇게 구상을 마치면 등장인물들의 주요 캐릭터를 스케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캐릭터의 얼굴을 제 방식으로 그리다 보면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창작이란 방대한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의 반복 과정인 것 같아요.

**동화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전달하기보다 어린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동화 창작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신가요?**

**미란** 세상의 변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어른들의 몫일 수 있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어린이들의 동심이 있어요. 동심은 단순한 순수함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타인을 친구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에요. <내겐 소리로 인사해 줘>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투명한 아이>에는 친구들이 상상 놀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인 ‘눈’에게 ‘우주 시민증’이라는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비록 놀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불공평한 현실을 상상력으로 뒤집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동심에서 비롯된 연대와 공존의 감각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동심을 작품 속에 녹여낼 뿐이에요.

**작품 속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나 갈등을 다룰 때 현실적인 문제와 상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하시나요?**

**미란** 동화에서 상상력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만드는 힘으로 작용해요. 저는 작품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하되, 상상의 요소를 통해 어린이들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작품의 초점이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교훈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어린이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끼고 상상력의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글쓰기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독자와의 만남 자체가 제게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린이 독자 중 한 명이 “동화작가는 왜 존재하나요? 돈도 안 되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요?”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동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외롭고, 좁고, 견디기 힘들 거예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요. 잊고 지내던 어린 날의 제가 떠오르면서, 동화가 꿈과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평소 생각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었죠. 독자와의 소통은 창작자로서 성장하고 영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르로 인식되지만 때로는 어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곤 합니다.  
독자들이 동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기를 원하시나요?

**미란** 작품에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고민하지만, 사실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웃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화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년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장르예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매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동화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지요. 제가 바라는 건 독자들이 동화를 읽으면서 메시지를 받는 것을 넘어, 각자의 경험과 삶의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화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과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아동도서전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가 작가님께 그리고  
국내외 아동문학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란** 최근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이하 IBBY) ‘아너리스트’ 후보로 선정되어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IBBY 세계총회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전 세계의 작가, 편집자, 독서문화활동가들과 교류하며 많은 점을 배웠지만, 동시에 국내 아동문학이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아동도서전의 개최는 국내 아동문학의 글로벌 도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국내 작가들에게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스스로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관계자들에게는 한국 아동문학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아동문학이 많은 독자에게 알려지고, 문화적 교류와 영감의 원천이 되어 한국 아동문학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올해의 포커스온-문학> 분야에도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미란** IBBY 세계총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은 제 작품이 영어권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영문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해외시장과 접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죠.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인 <올해의 포커스온-문학> 공모를 알게 되었고, 사업에 선정되면서 '영문 홈페이지 개설', '리플렛 제작' 등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예요. 첫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작가들과도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작가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란** 어린이 독자들은 작가의 이름보다 책 속의 주인공을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제 책을 읽은 어린이가 작품 속 주인공과 함께 자라고, 그 주인공이 언젠가 그들의 손자나 손녀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제 꿈은 조금 거창하고, 말로 표현하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작품 속 주인공들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꿈꾸는 바를 이룬 셈일 겁니다. 제 작품이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미란

동화작가. 시대적 과제를 따뜻한 연대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2024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아너리스트 한국 후보에 선정됐다.

# 겨울눈의 기다림

글:그림. 광다희

2024. 11. 4 (목)

복잡하거나 쓰는 원료가 그림일기!



아이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다. 높고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생명 그 자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기는 울산 바닷가 앞에 있는 대형 카페. 작은 발로 종종 걸어 다니던 아이가 내 가방에 달린 여우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곁으로 다가온다. 아이 엄마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재빨리 작은 팔 사이에 손을 끼워 아이를 데려간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나도 저 아이처럼 작고 말랑한 시절이 있었겠지.

갓 태어난 내가 여물지 않은 성대로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엄마는 어떤 눈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든 그저 행복하기만 하라고 조용히 속삭여줬을까. 지금 엄마에게 연락해서 이십여 년 전 기억을 묻기엔 부끄럽다. 대신 상상으로 쫓겨난 코끝을 느끼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양을 그려 본다.

내 전공은 환경공학과.<sup>01</sup> 환경을 지키겠다는 큰 꿈을 품고 학교에 입학했다가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대학교 3학년에 환경 단체 활동가로 일을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환경을 주제로 문화 기획을 해왔다. 올해 초에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 환경 강사로 일했고, 내년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은 주말 저녁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 낮과 평일에는 예술 단체 '지구숨숨'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택 근무하고 있다. 주로 해양 쓰레기를 주제로 예술과 접목한 환경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한다. 지원사업 증빙 서류도 만들고, 회계도 한다. 아주 가끔, 원고 요청을 받아 글도 쓰고 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정확히 설명할 단어는 없다. 제일 가까운 단어로 프리랜서를 떠올리지만 거창한 느낌이다. 프리랜서도 분야가 있고, 직업이니까.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저축이나 투자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놀고먹기만 하는 백수는 아니니 나를 '비정규직 단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대학생 애인을 오전 수업에 데려다 줄 수 있어 기쁘고, 오전 열한 시의 햇살을 집에서 보고 만질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실컷 늦잠 잘 수 있어서 좋다. 부유하진 않지만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도 있다. 소중한 친구가 취업 소식을 알려오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다. 부르면 나가고, 부르지 않으면 뭐 해 먹고 살지 또 고민하는 나, 진짜 괜찮은 걸까.

01 대기·수질·폐기물·토양·해양 등의 오염 예방과 소음 및 진동공해 방지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누구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잘 내뱉지 않는, 기후 위기, 인권, 동물권, 생태계 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지구와 삶을 지키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런 나에게 격려와 환호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현대의 분위기에, 들끓는 에너지에 꽤 심취해 있었다. 기후 위기를 말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친구들과 시위, 캠페인,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나. 관계 맺고 표현하는 데 실수도 잦았지만 두 눈을 반짝이며 듣고, 개선하고, 성장하려고 애썼던 나는 지금 생각해도 멋있다. 한편으론 질투도 난다. 지금 나는 아주 심각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진 속 나는 알미울 만큼 상쾌하게 웃고 있다.

스물일곱을 앞둔 요즘, 자주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들 바쁘게 좋은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혼자 안일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친했던 사람도, 좋아했던 사람도 멀게 느껴진다. 유복해 보이는 삶에도 분명 지옥 같은 순간이 있을 텐데, 나는 우물 위만 볼 수 있는 개구리라서 쉽게 억울해진다.

스물다섯까지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뜻을 따라 살자고, 그 이후로는 번듯한 직장도 갖고, 부모님 호강시켜 주자고 다짐했는데 목표와 멀어져 있던 걸 자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흐른다. 전공인 공학과 멀어지고, 문화예술과 교육에 가까워진 나. 그렇지만 환경 운동가도, 기획자도, 디자이너도, 예술가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 부유하는 내 영혼이 뿌리내릴 곳은 어디일까.

하늘을 개척할 가지가 될지, 빛을 모으는 잎이 될지, 세상으로 퍼져갈 꽃이 될지 모른 채 봄을 기다리는 겨울<sup>02</sup> 신세는 이제 탈출하고 싶다. 고민으로 뭉친 어깨와, 빠근한 목덜미, 찌릿한 꼬리뼈를 달래며 집으로 가는 길, 유독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피어난 작은 풀이 선명하게 보인다. 흙 한 줌을 집 삼아 잠깐 내린 비로 목 축이고, 욕심 없이 자란 풀. 내 영혼도 저 풀처럼 작은 자리에도 만족하고 피어나면 좋겠다. 상상 속에서 엄마가 속삭여준 말처럼 어떤 삶이든 그저 생생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름 이불 같은 불안은 걷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카페 안을 돌아다니던 그 아이처럼.

02 예수목이나 다년생 초본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겨울을 지내기 위해 만드는 눈으로, 봄에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겨울내내 보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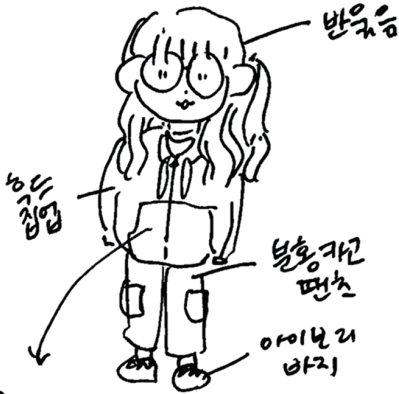
2024. (1. 3(일) 평일정에서

<어제밤 먹은거>



딱 먹어서 배아프기 좋은  
조합이다... 여기에  
기타까지 먹으면  
바~르 할장날 행!!

<인생의 착상>



여기저기  
받은 잉크펜  
쓰다가 끝내는게  
특징이다.



안에는 검은 티  
뒷담에 대마와이...  
패션에 이런 소재가  
사용되는건 신기하당  
공적인 자리에서 정대  
못 입는다 ^^



시그스 북펜으로  
돌아왔다.  
0.5mm 잉크다  
안쓰는데 끝까지  
리미트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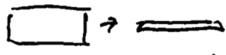
13년째  
항해한  
필통에  
어제날  
채집의 선을 닮았다.



카피  
마커서  
손떨리네



DAISO 다이소 목지메모장  
누군가들 제왕이쓰



요만큼 낡았다.

갑자기 먹기쓰는 이유는 그냥 문방  
조금이라도 해볼라군.



어널때 언니파라 십자수 했었는데  
십자수 수박을 보니 다시하고싶어진다.  
프개질보단 수물 등...! 00

곽다희

틈에서 자란 풀을 보면 카메라를 든다. 삭막한 도시에서 열심히 자기 존재를 피우는 사람들과 풀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독립 출판 환경 에세이 『구름의 말』을 썼고, 잡지 『함께 가는 예술인』에서 「토끼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법」을 연재했다.



# 지금, 부산문화재단 15주년

부산문화재단의 '지금'은  
지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지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 막힌 미로에서 길을 찾다

글. 이주영



2024 BPAM 조인 <그룹-업>

내 인생에서 2024년 여름만큼 더울 때가 언제 있었을까?

2024년 여름을 떠올리면 성인발달장애인 직업훈련반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실에서 더위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그럼에도 <그루-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이들과 온그루홀에서 '나를 알아가는 길'을 땀과 열정을 담아 몸으로 체득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6월 말 즈음 직업훈련반 훈련생 대상 장애 예술 활동으로 무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 댄스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 '훈련생 기능향상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를 품고 첫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체적으로 다른 외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강사님의 진행 방향에 맞추어 정해진 활동 및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번 <그루-업> 무용 교육은 큰 틀 안에서 훈련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호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쳐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 되면서, 훈련생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모두'의 프로그램 활동이 되었다.

훈련생들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음악에 맞춰 표현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언어'라는 매개체 대신 '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잘하고 못함'의 구분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훈련생들이 똑같은 동작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쓰였던 나는, 1:1 개별지도만 하던 담당자에서 중국에는 어떤 동작을 하든 '나답게', '당당하게' 표현만 할 수 있다면 훈련생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담당자가 되며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번 활동이, 사회의 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그들의 한계를 정해버렸던 스스로에 대해 반문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셈이다.

복지관 훈련생 중에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지윤(가명)이라는 친구가 있다. 지윤이는 복지관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좋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왜 복지관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단독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혼이 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런 지윤이가 <그루-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로부터 "어머, 지윤아, 너 정말 무용에 재능이 있구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 이후 내게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전해왔다. 왜 감동적이었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줘서요. 선생님들께는 저의 귀여운 모습, 짜증내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라고 방긋방긋 웃으며 말해왔다. 그러면서 당당한 어투로 “저 이제 장애 예술가예요!”라는 말을 어찌나 자랑스럽게 하던지, 직업훈련반 담당 사회복지사로서 여기저기 헤매던 미로에서 또 다른 출구를 찾는 기쁨을 느꼈다.

지윤이가 장애 예술 활동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지윤이는 공연 연습하러 가는 길에도 놀러 가고 싶은 곳으로 이탈해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걱정시켰다. 하지만 결국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폭우를 뚫고 비에 흠뻑 젖어 다시 연습 장소로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든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보호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윤이 어머니가 “저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한턱 낼 때 얻어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그룹 프로젝트 공연 이후에는 제가 우리 지윤이 일로 기분 좋게 한턱 썼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호자분들과 함께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늘 발달장애인의 부모라는 이유로 어디에 가든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반복해야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를 알리는 무대에 선 자식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윤이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모든 장애인과 함께, 비록 다소 느리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함께 찾아 걸어가고 싶다.

#### 이주영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반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화를 위해  
직업 적응과 역량개발 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 틀에디션 : 바다에 핀 들꽃

글·사진. 양승민



2024 BPAM 쇼케이스 <틀에디션 : 일장춘몽>

2014년 부산의 한 대학 연기와 재학시절, 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영야류를 접한 후 부산의 전통 탈춤에 푹 빠져 있었다. 전통 장단과 춤사위는 항상 신명과 흥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동기들과 클럽에서 수영야류 말뚝이 춤을 추고 놀 정도로 전통을 즐겁게 향유하던 시절 문득, ‘나는 한국 전통 탈을 쓴 행렬을 데리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공연을 할 거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유럽의 전자음악의 강렬한 비트 위에서 춤추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참 강렬하고 새로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나는 극단 아이컨택의 대표로 공연예술에 푹 빠져있었다. 2월 오론동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했고, 극단 형을 따라 그들의 애프터 파티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루츠리듬을 발견했다. 한국 전통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융복합 전통 트랜스 뮤직 밴드였고, 과감했다. 그리고 나는 연락처를 받고 바로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업이 바로 부산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자율기획형 사업이었다. 기획과 콘텐츠를 청년의 손에 맡긴다는 사실이 참 매력적이었고, 주저없이 신작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융복합 댄스팀 킬라몽키즈와 협업하여 세 팀의 컨소시움 형태로 프로젝트팀을 만들게 된 것이 트래디션(Tradition)이었다. 전통(Tradition)의 변형어로 전통을 재해석하고 답습하던 틀과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자는 신조와 의지였다. 팀 트래디션은 각 분야의 5-10년 경험자를 중심으로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판소리, 대금, 가야금, 전통타악, 힙합, 스트릿, 탈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를 포용하는 ‘일장춘몽’이라는 매력적인 콘셉트를 만들어내었다. 어떠한 제약과 검열이 없는, 모두에게 평등한 광장에서 공연함으로써 모두에게 열린 공연을 만들고 싶었던 나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초연을 진행했다.

이후 공공기관 및 페스티벌에 초청받았고, 2024년에는 부산탁구세계선수권대회 오프닝 쇼에 초청되기도 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나는 세계 무대로의 진출과 연작 시리즈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국내 페스티벌 초청 공모에 솔하게 낙방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여실히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고, 공연마다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피드백을 보완했다. 병렬적인 융복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력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병렬을 입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작품의 관점을 비틀어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툐에디션 세계관 두 번째 시리즈인 <툐에디션 : 요괴야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창작산실로 선정이 되었다. 이는 <툐에디션 : 일장춘몽> 이후로 쉬지 않고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졌던 집요함과 한국전통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굴해내어 우리만의 언어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의 집합체였다. 창작산실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예술지원 시스템 중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업이었다. 이는 툐에디션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검증인 셈이었다. 그리하여 창·제작진을 보완하여 새로 출범한 요괴야류를 10월 20일 초연하게 되었고, 현재는 재공연 일정을 조율하며 국내·외 마켓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툐에디션 : 선견지명>이라는 세 번째 세계관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장춘몽’의 해외진출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극단 따뜻한 사람의 <컨테이너> 프로듀서로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 연극 페스티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잠시 틈을 타서 시비우 야외공연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고, 운이 좋게 40분의 티타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툐에디션 : 일장춘몽>의 모든 자료와 영상을 보여주며 작품을 어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연장과 초청의지를 확정받았다. 그렇게 나는 감히 투어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준비는 2024년 10월까지 이어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다원예술 쇼케이스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피땀 흘릴 만큼 열심히 했고, 페이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비전만 보고 따라오는 10명의 아티스트에게 보답하고자 구두굽이 닳도록 따라다니고, 미팅하면서 여기 우리가 있음을 알렸다. <툐에디션 : 요괴야류> 초연 준비와 함께 진행했던 터라 에너지드링크 없이 버틸 수 없는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만은 점점 또렷해져갔다. 그리고 대망의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는 4명의 초청담당자에게 둘러싸였고, 그중 두 곳, 불가리아 Ivan Vazov 국립극장, 폴란드 ULICA 페스티벌과 악수를 했다. 폴란드는 우리 작품을 총 크라코프 외 2개 도시에서 공연할 수 있게 추가적인 투어 공연에 대한 에이전시를 자청하여, 3개국 5개 도시 공연을 확정지었다. 그로부터 2주 뒤 다시 우리는 두 번째 시리즈인 <툐에디션 : 요괴야류>로 광안리 모래를 밟았다. 전통요괴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여 신나는 곳판으로 만들었다.

시민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의 작품이 그 바닷가에서 처음 피어오른 것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곧, 모두가 툐에디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검열이 없고, 모두에게 평등한 그곳 광장에서 띄운 야생의 무궁화 한 송이는 이내 유럽에, 아시아에, 머지않아 전 세계에 흩날릴 것이다.



#### 양승민

아이컨택(ICONTAT) 대표, 배우, 프로듀서로, 공연콘텐츠 창·제작을 총괄하고 있으며,  
틀에디션(TR-EDITION) 대표이자 연출로 활동 중이다. 또한, 부산연극협회 국제교류예술감독과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콘텐츠 디렉터로서 부산과 국제 무대에서 예술 교류와 창작을 선도하고 있다.

# <Our [ ]>

글·사진. 윤아연



IME, 인도네시아, 2023

BWC 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스트릿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여러 가지 장르의 전공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서로 다른 예술적 배경과 스타일을 바탕으로 협업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무용 장르를 아우르며 무대에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진행된 B.RISING ARTIST에서 선보인 <Our [ ]>라는 작품은 BWC 댄스컴퍼니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한 작품으로 참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Our [ ]>는 완성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의 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즉 공동체의 가능성과 완성의 여정을 주제로 전체 2장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첫 번째 장은 우리가 느끼는 헤어짐과 멀어짐의 아픔을 그리고자 하였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각자의 개별적인 이유나 선택으로 인해 그 관계의 끝을 맞이하거나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헤어짐은 우리에게 상실감과 외로움, 불확실성의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첫 번째 장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상처를 허용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헤어짐은 끝이 아닌 화합을 위한 기회를 내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 장에서 경험한 아픔과 거리를 넘어, 화합과 결합의 과정을 담았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서로의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며 다시 연결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통해 그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며 희망을 찾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아내었다.

<Our [ ]>의 빈칸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차이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상징이다. 빈칸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빈칸 속에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이 작품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빈칸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서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공동체의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년 11월, BPAM(Busan Performing Arts Market)의 행사 중 하나였던 대학생 프로그램인 B.RISING ARTIST를 통해 인도네시아 IMF(International Mask Festival)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다. 무용수로서 해외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다. IMF는 세계 각지에서 온 전통 가면과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였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소도시인 솔로와 말랑에서 총 두 번의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 공연은 단순히 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었고, 그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BPAM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었고, 특히 IMF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우리의 전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

IMF 행사는 극장 내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공연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물들이 배경이 된 야외에서 열렸는데, 무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관객들이 공연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 축제와 공연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은, 내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관객과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와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무대 위에서 짜릿한 느낌과 함께, 그 순간을 함께한 모든 이들과의 소통이 너무나 값지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또한 공연 후에는 여러 나라 사람과 무대 뒤에서 소통하며 서로의 전통춤과 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기회도 있었다. 각 나라의 전통춤과 가면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전통춤을 배우고, 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무대에서 춤을 추고, 무대 뒤에서 서로의 전통에 관해 이야기하며 느낀 점은, 예술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이 각 나라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나의 무용 경력을 넘어서, 문화 간 교류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들을 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

BPAM B.RISING ARTIST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IMF에 참여했던 작년의 경험이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년에도 다시 B.RISING ARTIST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더 뜻깊은 참여가 되었는데, 아동예술무용과 졸업생으로서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덕분에, 학창 시절 함께 공부했던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어, 그동안 나누었던 무용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참여에서는 여러 델리게이터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우리가 선보인 작품이 더 넓은 무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델리게이터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드백과 조언은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다가왔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작품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매우 기뻐다.

이번 B.RISING ARTIST 참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작년 BPAM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의 연장선처럼 느껴져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며, 예술적 가치와 비전을 나누고,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예술무용학과 졸업생으로서 재학생들과 함께 협업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들과의 협업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배우며 나 자신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쩌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과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지 내가 속한 팀의 작품을 더 넓은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이 단지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델리게이터들과의 만남, 다양한 예술적 교류를 통해 내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은 나의 예술적 비전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술이 단순히 공연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 윤아연

코레오그래피와 스트릿댄스를 기반으로 연출자 및 안무가로 활동 중이다.

# 무언(無言)의 공간, 예술로 다가오다

글·사진. 신나리



2020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사업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21일 동안 부산의 공·폐가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이 지닌 고유한 이야기에 다섯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서사를 창조했다.

이 글은 당시 사업 담당자로서 보도된 프로그램의 내용 외에도, 다섯 공간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 장림시장에서 발견한 예술의 힘

김보경 작가는 1970년대 대티터널 공사로 인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사하구 장림동의 장림시장에서 폐업한 식당을 체험 공간으로 삼았다. 2년 전 화재로 폐쇄된 이 공간은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작가는 그곳을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장림동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던 날, 한 할머니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며 흐뭇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술이 한 사람의 삶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모래시계가 내게 주는 치유

김덕희 작가는 사하구 다대포 물운대 끝자락의 빈집을 작업 공간으로 선택했다. 그 집 옆에는 시멘트 담장을 사이에 두고 큰 목재공장이 우뚝 서 있고, 멀리 보이는 작은 바위섬 위엔 낚시하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평화로운 풍경에 여유로운 느낌을 더해주었다. 작가는 집 안을 모래로 가득히 채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부드러운 눈을 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고요한 모래 방 안에서 지나온 시간 중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모래시계로 만들었다. 아직도 그 모래시계를 볼 때면, 그때의 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며, 소중한 순간들이 영원히 간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집

여상희 작가는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빈집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집은 2년 전 돌아가신 집주인의 오래된 찬장, 소파, TV, 그릇 등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작가는 아미동에서 자생하는 식물과 기존의 비석 작품을 결합해,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자취가 자연에 의해 서서히 덮여가는 과정을 담아냈다. 여기서 '비석'은 대중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을 뭉쳐 만든 작품으로, 작가가 선택한 시간과 기억의 매체이다. 아미맘스 회장님의 안내로 진행된 마을 투어는 마치 작가의 작업을 확장하여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아미동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의 흔적이 얹히고 쌓여,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술과 역사적 공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엄마라는 이름 속 또 다른 나

왕덕경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누군가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산진구 초읍동 원당골의 한 주택 옥상을 새로운 전시 체험의 장으로 삼았다. 이 옥상은 화분과 텃밭, 손자와 손녀들의 장난감, 길게 드리운 빨랫줄이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깃든 공간이었다. 작가는 '엄마 시기'를 공간화하기 위해 두 개의 임시 건물을 옥상에 설치했다. 11명의 작가와 일반인들이 제작한 '엄마'와 관련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졌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마주한 감정을 단어와 문장으로 유리잔에 새겼다. 비록 나는 아직 '엄마 시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엄마'라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자기희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 시간의 흔적, 소리 산책

정만영 작가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1960년대에 지어진 2층 양옥을 전시 공간으로 소개했다. 이 집은 대부분의 내장재가 사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만 남은 채, 고층 아파트와 재건축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여전히 당시 가족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두 개의 아궁이와 지하의 족욕탕, 맷돌은 마치 시간의 조각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가는 '촉각적 소리 산책'을 통해 시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리와 공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된 이 집은 '초량재'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로운 문화적 생명력을 얻어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진행된 1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는 작가들이 선택한 각기 다른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나를 포함한 186명의 참가자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경험을 안겨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다섯 분의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부산문화재단 컬처튜브를 통해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 영상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란다.

끝으로, 4년 3개월 동안 함께한 부산문화재단 식구들에게 변함없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일상이 예술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길.

신나리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INTJ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 비밀의 창고

글·사진. 박소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직장인이 있다. 회사의 비밀을 아는 직장인과 모르는 직장인. 나는 그 비밀을 아는 직장인이다.

처음 그 존재와 마주친 건 며칠 전이었다. 야근 중 잠깐 눈을 붙였다가 어렴풋이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옷을 덮어주려 하고 있었다. 손에 들려 있던 옷은 고운 광택이 흐르는 새빨간 비단에 정교한 용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는... 틀림없는 곤룡포였다.

흐트러짐 없는 눈빛, 고요한 표정, 하지만 그 속에 깊이 서린 강렬한 기운. 평온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 나는 첫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세종...대왕...?”

“내가 단잠을 깨워버렸구나.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 잠든 신숙주가 떠올라 옷만 덮어주려 했네.”

“대왕님이... 어떻게 여기...?”

대왕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그 손끝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보이지 않았다! 원래 회사 건물 앞에 늘 있던 그 동상이.

우리 회사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옛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건물 앞, 운동장이었던 자리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항상 있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세종대왕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어렸을 때 학교마다 그런 괴담 있지 않은가. 매일 밤 운동장의 세종대왕 동상에 있는 책이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데 페이지가 다 넘어가는 날 학교 건물이 무너진다는가 하는 그런 괴담들. 그런데 괴담인줄만 알았던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다.

페이지는 1월 1일 밤에 넘어가는데 모든 페이지가 넘어가면 동상이 있는 장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세종대왕의 영혼이 찾아갈 수 있고 영혼이 깃든 동상은 그날부터 매일 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선택한 장소가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 부산문화재단이었다.

“왜 이곳으로 오셨어요? 동상은 광화문에도 있고 다른 좋은 곳들이 더 많을 텐데요.”

세종대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 머물 곳은 많았다. 하지만 이곳이 내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구나.”

내가 고개를 가웃하자 세종대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 부산은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을 견뎌내야 했던 곳이었지. 그때마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땅이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 문화와 예술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이니 자연히 마음이 이곳에 닿았다. 부산문화재단의 로고를 ㅂㅅ ㅁㅎㅈㄷ이라는 자음으로 만든 것도 기특하더구나. 몇 년 전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내 관심을 끌었지. 여전히 이 땅에는 인재가 가득하구나.”

“그러셨군요. 평소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 원래 궁에서도 늘 여러 서적과 기기들을 탐구하며 밤을 지새웠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밤마다 문서와 기기들을 탐구하고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업무에는 해법을 메모로 남기기도 한다네. 요즘에는 기타라는 서양 악기를 탐구 중일세.”

“대왕님께서 기타를요?”

“내 종묘제례악도 작곡하지 않았던가. 서양 악기를 익히는 것도 흥미롭더구나. 기타란 악기의 소리가 아주 탁월하더군. 손끝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열심히 한다네.”

세종대왕은 눈을 감으며 부산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셨다.

“낮 동안 직원들이 문화예술 사업을 논의하는 걸 들으면 나도 문화예술을 위해 고민했던 시절이 떠오르더군. 황희 정승이 고생이 많았지. 그 못지않게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밤낮없이 노고가 많더군. 자네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펼친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교류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의 정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일세. 요즘은 ‘아파트’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들었다. 내 한 번 들어보니 베이스 음이 매력적인 노래더구나.”

요즘 유행하는 음악까지 꿰차고 계시다니 ‘정말 대왕님은 대왕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왕님을 이리 만나 뵈다니 영광스럽고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자네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지겠지. 자네가 하는 일이 흥미롭구나.

내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잘 알고 있네. 자네도 그 일을 통해 얻는 것이 많을 것이야.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일이란 단순히 사신의 왕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니 말일세.”

“네. 어려운 순간도, 뿌듯한 순간도 많았지요.”

그날 밤 세종대왕과 나는 한참을 더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다시 대왕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출근길마다 세종대왕 동상의 손끝을 유심히 바라본다.

점점 두꺼워지는 굳은살처럼 부산의 문화예술이 더 깊어질 것이라 믿으며.

박소라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에서 근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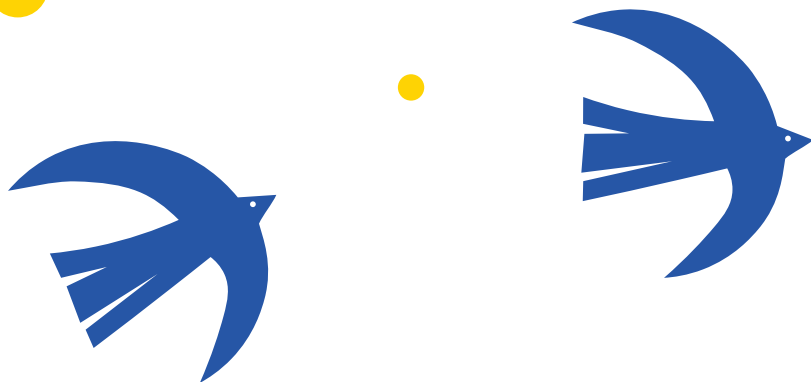
공감 그리고, 너머

# 내 꿈 먹지 마!

만약 두 사람의 꿈을 물어뜯으려는 게 나온다면, 나도 그 꿈으로 가 옆에서 응원할 것이었다. 그런 건 우리의 꿈을 먹어 치울 수 없을 테니까.

이수빈

2024 부산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에 「매력 흠치기」가 당선되며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장르를 넘나드는 따뜻한 이야기로 수많은 독자에게 가 닿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꿈을 꿀 수 없게 된다고.”

“그게 병도 아닌데 왜 무서워?”

“바보야, 너는 꿈을 뺏기는 거야, 영원히. 네가 꾸고 싶어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었어. 노는 것도, 늦게까지 안 자는 것도. 난 어른 되면 백만 구독자 먹방 유튜버 돼 있을걸?”

연우와 김승준이 좀비 꿈 이야기로 아침부터 싸우고 있었다. 좀비 꿈은 요즘 SNS에서 유행처럼 후기가 올라오는 꿈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어떤 사람은 엄마, 어떤 사람은 돈다발, 어떤 사람은 친구….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꿈에서 뭔가에 쫓기다가 물어뜯겼다. 그렇게 먹히는 꿈을 꾸고 나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다시는 꿈을 꾸지 않게 된다고 했다. 좀비, 귀신, 아무튼 무서운 것한테 쫓기는 건 질색이다. 나는 달리기도 느린데다 쫓기는 게 싫어서 애들이랑 술래잡기도 안 하는데, 꿈에서라고 잘 달릴 리가 없다.

“야, 임수정 좀비 꿈 꿔대!” 뒷문을 보니 수정이가 시끄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수정이는 자리로 가 책을 폈다.

매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창틀을 붙잡고 다리를 찢던 수정이인데,

뭔가 이상했다. 오늘은 스트레칭 안 하나는 김승준의 질문에 수정이는 흥,  
웃으며 우리에게 책 표지를 보여줬다. ‘초등학생을 위한 주식 기본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너 발레리나 할 거라며?” 연우가 물었다.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난 현실을 볼 줄 알게 된 것뿐이야.” 수정이의 말에 김승준이  
감탄했다. “오, 너 되게 어른스러워졌다.” 연우가 김승준을 째려봤다.

선생님이 꿈인 연우는 김승준이 눈치 없이 행동할 때마다 잔소리해서 둘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때마다 둘을 말리는 건 언제나 나였다.

이번엔 둘을 말리는 대신 내 필통을 짹 쥐었다. 잘 부러지는 연필을  
보관하라고 엄마가 솜도 넣어 만들어 준 필통이다. 나는 불안할 때면  
왼손에 필통을 짹 쥐고 오른손으로는 내가 만든 개구리 캐릭터 ‘행굴 씨’를  
그린다. 행굴 씨는 네잎 클로버 머리핀을 달고 연잎 위에 누운, 웃는 개구리  
캐릭터다. 6살 때 행굴 씨를 처음 그리자 엄마가 우리 딸은 분명 천재 화가가  
될 거라며 칭찬해준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그날부터 꼭 내 꿈은 화가였다.  
행굴 씨는 나와 함께 쑥쑥 자라면서 이런저런 설정이 생겼다. 하트 모양  
클로버 이파리를 먹고, 연잎에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하고, 언젠가 친구가  
생기면 연잎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 주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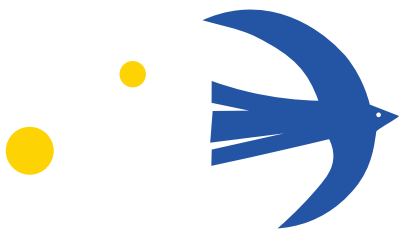
“만약 우리도 좀비 꿈을 꾸게 되면 어떡해?” 연우가 갑자기 울상을 지었다.

“그럼 나 불러. 내가 좀비가 너희 못 물게 일단 붙잡아 볼게.” 김승준이  
나와 연우를 보며 씩 웃었다. “바보야, 사람마다 다른 게 쫓아오는데 뭐가  
달려들 줄 알고?” 연우가 쏘아붙였다. “뭐가 됐든 내가 막아준다니까? 대신  
너네도 내가 부르면 달려오면 되지.” 김승준의 말에 연우가 눈동자를 굴리며  
고민했다. 나는 일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만한 김승준의 얼굴을  
보니 왠지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았다.

덜 무섭다는 건 취소다. 침대에 눕자마자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좀비 꿈을 꾸다보면, 날 쫓아오는 건 뭘까? 수정이는 발레복을 입은 곰이 쫓아왔다고 했다. 발레복을 입은 곰이라니, 웃길 것 같은데 그게 날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했다. 갑자기 발이 시린 것 같아서 이불 안에 발을 꼭꼭 숨기고 억지로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필통을 꺼냈다. 폭신한 필통을 손에 꼭 쥐자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필통을 쥔 채로 침대에 누웠다.

눈을 떴는데도 세상이 어두컴컴했다. 여기가 내 방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갑자기 내 눈앞에 행굴 씨가 나타났다. 나만큼, 아니 나보다 큰 행굴 씨였다. 행굴 씨는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행굴 씨가 나에게로 달려와 내가 왼손에 쥔 필통을 뺏으려고 했다.


“싫어! 저리 가!” 나는 필통을 꼭 끌어안았다. 행굴 씨는 나를 할퀴기 시작했다.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갈퀴가 달린 발가락이 내 팔을 스치자 팔뚝이 움푹 파이며 상처가 났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구멍이 날 것처럼 깊게 파인 게 무서웠다. 번뜩 김승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떠오르는 대로 아무나 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저멀리 잠옷 차림의 엄마가 나타났다. 뒤이어 잠옷 차림의 김승준과 연우도 나타났다. 모두 내 쪽으로 달려왔지만, 우리 사이에 유리 벽이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나랑 행굴 씨만 이 안에 있는 거였다. 나는 있는 힘껏 도망쳤다.



달리기가 느린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야!” 바보같이 내 발에 내가 걸려 무릎부터 세게 넘어져 버렸다. 꿈인 걸 아는데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행굴 씨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행굴 씨는 내 필통을 빼앗으려 했다. 좀비 꿈을 꾸면 무조건 나를 물어뜯어 버린다는데, 왜 필통에 집착하는 거지? 나는 내 손에 있는 필통을 뺏히 봤다. 필통을 열어 연필을 꺼내자 행굴 씨가 다급하게 발을 뺐었다. 영화에서 본 적 있다. 이럴 땐 이게 여기서 탈출할 열쇠다. 그런데 뭘 그어야 하지? 나는 개구리의 천적을 떠올렸다. 부엉이? 독수리? 그래, 뱀! 뱀은 빠르게 그릴 수 있고,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 나는 후다닥 연필을 허공에 대고 뱀을 그렸다. 내 예상대로 뱀이 나타났다. 뱀은 식식거리며 행굴 씨에게 다가갔다. 뱀이 행굴 씨를 물 때마다 행굴 씨의 몸에 상처가 났다. 나에게 난 것과 비슷하게 움푹 파여서 구멍이 날 것 같은, 깊은 상처였다. 행굴 씨는 점점 작아졌다. 뱀이 행굴 씨를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렸다. 행굴 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행굴씨의 얼굴에도 할킨 것 같은 상처가 가득했다.

“안 돼!” 나는 행굴 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필통에서 지우개를 꺼내 뱀을 지워버렸다. 뒤를 돌아보니 행굴 씨가 나를 뺏히 보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의 작은 행굴 씨가 나를 다시 쫓아 왔다. 행굴 씨가 계속 나를 핏대했다. 나는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엄마와 친구들 쪽을 쳐다봤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내 손가락의 상처가 사라졌다. 다시 고개를 들어 연우와 눈이 마주치자 뱀의 상처가 사라졌다. 김승준과 눈이 마주치자 팔뚝의 상처가 사라졌다. 이젠 정말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허공에 연필로 하트 모양 클로버 이파리를 그렸다. 행굴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이파리라 그런지 행굴 씨는 나를 쫓다 말고 이파리를 먹기 시작했다. 행굴 씨가 이파리를 먹자 행굴 씨의 몸에 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멍하니 행굴 씨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에게로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친구들도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투명한 벽은 어느새 사라진 듯했다. 이파리를 다 먹은 행굴 씨는 더는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행굴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행굴 씨가 슬쩍 발가락을 내밀었다. 말랑하고 축축한 발과 악수하니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행굴 씨에게서는 연필 냄새와 풀 냄새가 났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먼저 온 김승준과 연우가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씩 웃었다. 만약 두 사람의 꿈을 물어뜯으려는 게 나온다면, 나도 그 꿈으로 가 옆에서 응원할 것이었다. 그런 건 우리의 꿈을 먹어 치울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자리에 앉아 또 행굴 씨를 그렸다. 행굴 씨의 연잎 위에 나도 함께 누운 그림을 그리자 시원하게 연잎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뒷문으로 수정이가 들어왔다. 또 두꺼운 주식 어찌고 책을 들고 바로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발레복을 입고 다리를 쭉 뻗는 수정이를 그렸다. 수정이를 톡톡 치고 그림을 건넸는데, 수정이는 힐끔 쳐다보기만 했다. “난 너 유연한 거 멋있더라.” 내 말에 수정이가 수줍게 웃더니 그림을 받아서 꼬옥 쥐었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먹방 유튜버가 된 김승준, 선생님이 된 연우…. 그리고 싶은 게 아주 많았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오늘따라 더 기분 좋게 귀에 울렸다.

##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후원혜택 1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후원혜택 2

**일반회원**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평생회원**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후원혜택 3

홈페이지

[www.bscf.or.kr](http://www.bsc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재정관리팀 051-745-7253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감 그리고>를 웹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통권**

55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4. 12. 20.

**발행인**

이미연

**편집위원**

오성은 박보은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김정 강보현

**표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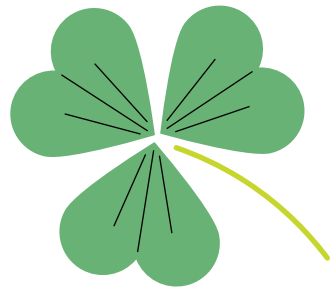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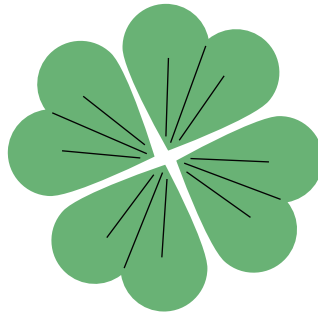
박보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www.bscf.or.kr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글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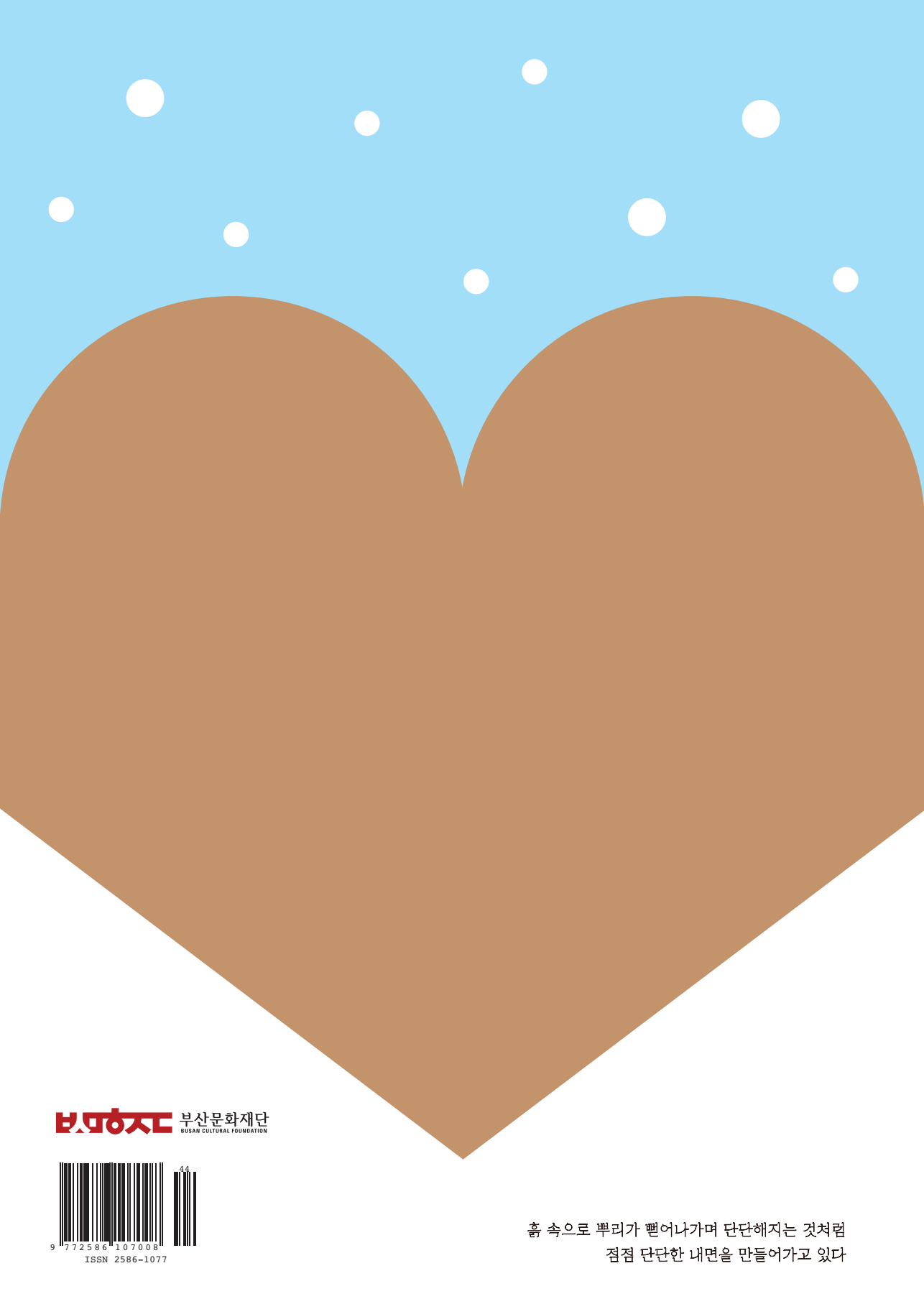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문명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식물을 잡초라 부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풀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적을 갖고 나왔다.  
쓸모없는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체로키족의 말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

흙 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며 단단해지는 것처럼  
점점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가고 있다